해양문화치유센터서 만나는 미디어아트

완도군, 미디어아트 조성 착수
해양문화치유센터에 7월 준공
'평화로운 정원' 주제
스토리 콘텐츠·첨단 영상 접목

완도군이 해양치유 블루존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신지면에 건립 중인 해양문화치유센터 시청각동에 미디어 아트를 선보이는 시설을 건립중이다. 최근 군청에서 열린 '해양문화치유센터 미디어 아트 제작 사업' 착수 보고회. 〈완도군 제공〉

"해양문화치유센터에서 미디어 아트 만나보세요."

완도군은 최근 군청에서 '해양문화치유센터 미디어 아트 제작 사업' 착수 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해양문화치유센터 미디어 아트 조성은 해양문화치유센터를 방문하는 관람객에게 완도 해양치유와 관련된 스토리 중심의 콘텐츠를 첨단 영상 기술과 접목한 실감형 미디어 아트를 선보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추진 중인 해양치유 블루존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신지면에 건립 중인 해양문화치유센터 시청각동에 사업비 5억원을 들여 올해 7월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미디어 아트는 'serene garden'(평화로운 정원)이라는 주제로 고요한 정원, 바다의 시간, 숲의 소리, 깊게 가라앉기 등 4단계를 통해 시각과 청각의 편안함을 제공하는 미디어 아트로 구성될 예정이다.

특히 단순한 영상 관람 공간이 아닌 '치유'라는 주제를 담은 스페이스 텔링(공간과 스토리텔링을 합성한 말) 개념을 도입해 새로운 실감 영상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완도 해양문화치유센터의 랜드마크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해양문화치유센터는 4개동(시청각, 후각, 미각, 청각)에 해양문화자원을 기반으로 인체 오감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문화 예술 활동을 통한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치유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이달 말까지 조성된다.

강성운 완도군수 권한대행은 "해양을 통한 힐링, 치유가 각광을 받고 있는 만큼 치유 콘셉트에 부합한 새로운 전시 콘텐츠를 조성하여 미디어 아트를 통해서도 해양치유를 실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신안 흑산 무심사지 삼층석탑 석등. 〈신안군 제공〉

신안군, 흑산도 무심사지 학술대회 10월 개최

신안군은 해남 대흥사(주지 법상 스님), 재단법인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제정 스님)와 함께 베일에 쌓인 흑산도 무심사지의 규모와 성격을 규명하는 학술대회를 10월 개최한다.

흑산도는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한·중·일 국제교역의 기항지이며 무심사지 일원에서 발굴된 다양한 유물들은 고대 해상문화의 위상을 보여준다. 이를 보존하기 위해 전남도에서는 '신안 흑산 진리 무심사지 삼층석탑과 석등'을 1994년 전남도 문화재자료로 지정했다.

2015년 국제학술대회 이후 7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20여 년에 걸쳐 진행된 무심사지 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무심사지 성격 규명'과 '보존정비·활용방안 마련'을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학술대회에서는 동아시아에서 신안 흑산도의 국제항구로서 역할과 위상, 불교사적 위상, 발굴조사를 통해 본 유적의 성격, 고건축 복원 고찰을 통해 본 무심사지 성격, 무심사지 문화유적의 보존 활용 방안 연구 등 5개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5월부터 본격적인 학술조사에 들어가며 10월경 학술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무심사지 복원과 불교자원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의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진도군, 아열대작목 육성 박차

열대과일 애플망고·바나나
9개 농가서 2.1ha 재배

진도군이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애플망고와 바나나 재배를 본격 시작한다. 바나나 재배 시설하우스. 〈진도군 제공〉

진도군이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애플망고와 바나나 재배를 본격 시작했다.

진도군에 따르면 2018년 애플망고 재배 농가 수 4호를 시작으로 4년이 지난 지금 재배 농가 수는 애플망고 7호, 바나나 2호, 면적은 2.1ha에 달하게 됐다.

오는 8월 수확에 들어가는 진도산 애플망고는 나무에서 충분히 익은 후 수확하기 때문에 수입산보다 향이 진하고 당도가 높다. 노란색을 띠는 일반 망고와는 달리 사과처럼 붉은 빛깔을 띠는 애플망고는 열대과일의 여왕이라 불릴 정도로 맛과 향, 식감이 뛰어나다.

애플망고는 시기별 재배 방법이 까다로워 진입장벽이 높은 작목이지만 아열대 작목 중에서는 고소득 작목에 속한다는 전남농업기술원의 분석결과도 있다.

지난해 12월 식재하고, 올해 2월부터 수확을 시작한 진도 바나나 역시 2달 만에 10 t 이 넘는 생산량을 완판하는 등의 높은 판매 성과를 보여 시범사업의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에 진도군 농업기술센터는 전남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와 협력해 농가별 현장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명품 아열대과일 주산지화를 위해 보급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연평균 기온이 14.7℃로 다른 지역보다 따뜻한 진도는 난방비 절감 등 아열대작목 육성의 최대 장점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아열대 작물 재배와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전남 조선업 인력수급·지원책 마련 시급"

지자체·조선사·협력업체 간담회

전남 서남권의 주력산업인 조선업의 진흥을 위해서는 인력수급과 정부의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남조선해양전문인력양성센터(센터장 노성호)는 12일 영암에서 서남권 조선업 활성화를 위한 인력수급 대책 및 지원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간담회에는 전남도와 영암군, 현대삼호중공업과 대한조선, 양 조선사의 사내협력사협의회, 대불산단경영자협의회, 전남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는 최근 지역 조선사들이 대거 수주에 성공한 가운데 이들 작업물량 처리를 위한 인력수급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선박 28척, 47억2700만 달러어치를 수주(목표치의 105%)했으며, 대한조선도 선박 4척, 3억7000만 달러를 수주(목표의 45%)해 양사 모두 2년 이상의 안정적인 일감을 확보했다.

이 같은 수주에 힘입어 영암 대불산단 조선 기자재업체도 전년 대비 작업물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인력을 구하지 못해 작업물량을 반납하는 초유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지역 조선업체들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최근 10년 이상 이어진 불황으로 종사자가 절반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데다 코로나19와 각종 규제로 외국인 인력난마저 가중된 결과다.

여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공급망이 붕괴되고 원자재가격 급등, 인건비 상승 등으로 지역 조선업체의 경영난도 더욱 심화되고 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